

아파트 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양 윤 재**

目 次

- | | |
|-------------------------------|--------------------------------|
| 1. 서 론 | 4. 쓰레기 분리수거의 당위성과 우리의 현실 |
| 2.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와
제도적 연혁 | 5. 선진외국의 쓰레기수거와 처리 |
| 3.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의 현황 | 6. 우리나라 아파트의 쓰레기처리 문제와
개선방안 |

1. 서 론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아파트는 우리들 주생활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으며, 이제 더 이상 외국의 것이 아니라 현대도시생활의 보편적인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총량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전체 주거의 13.5% (1985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의 주택개발에 있어 공동주택이 차지할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과 관련된 연구의 경향은 대체로 주택정책이나 주택공급, 또는 계획과 설계분야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는 주택의 양적 문제 해결이나 주택자체의 기능이나 효율성, 또는 건축적 측면에서의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주거환경전반에 대한 질적 문제나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거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볼 때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쓰레기처리와 쓰레기 투입구 문제도 바로 우리들의 주거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 주거생활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본 연구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현재 도시환경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도시의 쓰레기처리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투입구 문제는 아파트의 공급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부터

* 이 논문은 1991년 4월 대한주택공사 주최 아파트 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의 주제 발표논문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일부 전문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불과 3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1988년 당시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때를 전후하여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 문제가 몇몇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주부클럽과 같은 사회단체들도 시민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분리수거와 함께 쓰레기 투입구의 폐쇄를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다. 이와함께 서울시나 환경처에서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시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쓰레기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을 마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 각 분야의 노력과 시민생활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이렇다 할 성과나 결론이 제대로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가 매립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매립장의 확보난과 환경문제로 더이상 매립에만 의존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증가되는 쓰레기의 양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대비가 미처 마련되지 못한 때문이라 하겠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만이 가진 연탄재의 문제도 쓰레기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바로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이며 특히 아파트단지과 같은 공동주거생활의 경우 쓰레기처리의 문제는 주민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인식과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보겠다.

2. 아파트 쓰레기투입구의 설치와 제도적 연혁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택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장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이었으며,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금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단적인 공동주택이 단지로 형성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파트라는 이름을 가진 주택이 지어진 것이 1959년 지금의 대한주택공사 전신인 주택영단에서 설계한 개명아파트였으며, 쓰레기 투입구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세대 지 순 교수는 말하고 있다. 그 때 당시 소위 더스트 슈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고 어느 누구도 아는 바가 없어서 외국의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했는데 투입구의 크기가 너무 작기도 했거니와 연탄재라는 특수한 쓰레기의 처리와 분류의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 1961년에 완공된 마포아파트에서는 쓰레기 투입구의 크기를 두 배 이상 늘려 만들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쓰레기 투입구 설치는 그 이후 아무런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되어 오다가 1977년 건설부가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입법화되었다. 그 내용은 주택

건설촉진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9 조의 규정으로 3층이상의 공동주택에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1982년에는 투입구와 저장소, 그리고 투입구내부의 마감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강되었다. 그러다가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쓰레기처리 문제간 논란의 대상이 되자 건설부는 잠정적으로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를 이원화시켜 젓은 쓰레기와 마른 쓰레기를 구분하여 투척할 수 있도록 두개의 투입구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를 사업계획승인부서로 권한을 위임하면서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의무규정을 완화시키기에 이르렀다.

3.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의 현황

쓰레기는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부산물이며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소비가 많아질수록 그로부터 생겨나는 쓰레기의 양은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 없다. 1988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총 쓰레기 배출량은 2,660톤으로 인구 1인당 하루 평균 2.28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아 2.83kg이 배출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1.6kg, 서독이 1.4kg, 스웨덴 1.14kg, 스위스 1.0kg, 일본 1kg, 노르웨이 0.78kg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거의 두 배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낭비가 심한 편이며 여기에 미수거되는 연탄재까지 포함시킬 경우 쓰레기양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많은 쓰레기는 그 종류도 다양하여 연탄재, 폐기된 고형물질(콘크리트나 도자류 등)과 같은 불연성 쓰레기, 목재나 종이류를 포함한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등과 같은 같은 부패성 쓰레기, 그리고 금속이나 유리 깡통 등 재활용 쓰레기 및 프라스틱이나 비닐제품 등 비부패성 난연 쓰레기 등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다양하고 양적으로 많은 쓰레기는 지금까지 거의 일정한 구분없이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운반되었으며, 매립장에서 부분적으로 쓰레기를 분리해 왔다. 이러한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방식은 우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에서는 앞으로 상당한 비용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지난해 서울시의 환경미화원의 이직률이 94%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방식을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할 수 만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간 집하장의 경우 도로변이나 공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심이나 주거지의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장애로 인해 심야나 새벽에 주로 작업을 하게 되어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더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가하면 매립장까지의 운반에 드는 비용과 매립장의 환경오염문제, 주민들의 반대 등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지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단독주거지에서는 직접 눈에 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놓여지고 수거되는데 반해 아파트의 경우 이것이 투입구를 타고 내려와 지하지 집적장에 잠시 보관되었다가 수거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그야말로 편하게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름철의 경우 쓰레기 집적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리기도 아파트가격이 내린다는 이유로 알고도 모른척 지나쳐버리는 것이 이제 불문율처럼 되어 버렸다.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려 중간에 막히는 경우, 불씨가 남은 쓰레기를 그냥 버려서 화재가 나는 경우, 홍수가 나서 쓰레기 집적장의 쓰레기가 온 아파트에 흩어져버리는 경우, 물을 아끼느라 오물을 직접 슈트에 쏟아버리는 경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갖가지의 행태가 투입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악취와 해충의 온상지이기도 하며 고층에서 떨어뜨린 봉지가 온전하게 아래까지 내려올 리도 만무하며, 환경미화원의 머리에 떨어져 사고가 난 적도 여러번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리수거만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처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분리수거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데 쓰레기처리의 어려움이 있다.

4. 쓰레기 분리수거의 당위성과 우리의 현실

쓰레기 분리수거의 목적은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1978년 서울시는 연탄재를 분리수거하여 이를 재활용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가정주부와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실패를 한 후 1981년 환경청의 적극적인 권고로 다시 이 수거방법을 도입,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 환경청은 재활용, 가연성, 비가연성의 3구분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전국의 총 271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분리수거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139개 지역은 연탄재, 재활용, 일반쓰레기의 3구분으로, 대전 등 116개 지역은 재활용과 일반으로 그리고 대구 등 16개 지역은 재활용, 가연성, 일반으로 구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청,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분리수거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같은 도시에서도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혼돈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아직도 상당수의 주거지나 아파트단지에서 분리수거를 위한 집적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않고 쓰레기를 담은 용기가 구비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투입구의 구분이용이나 폐쇄에 대한 원칙이 아직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셋째

로는 일단 분리수거가 되더라도 운반이나 처리과정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서로 섞여져버려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도 한다. 넷째로는 각 지역마다 쓰레기 처리장이나 소각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연성 쓰레기도 매립해버리는 경우가 생겨 분리수거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분리수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5. 선진외국의 쓰레기수거와 처리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호응도도 무척 높으며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미 생활화 되어 있다. 물론 선진국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으며 여러차례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비로소 오늘과 같은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서독이나 프랑스의 경우 그들은 우선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데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예컨대 하노버시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비닐봉지를 따로 만들어 슈퍼마켓 등에서 팔고 있다. 당국에서는 이 봉지가 아닌 다른 봉지에 쓰레기를 싸서 버리면 수거해 가지 않음 때문에 시민들은 되도록이면 쓰레기의 양을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단지내의 편리한 곳, 예를 들면 현관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따로 쓰레기 적재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언제라도 손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적재함은 쓰레기 수거차량에 의해 깨끗하게 처리장으로 운반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1975년 이전까지 공동주택에서 쓰레기투입구를 사용하였으나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면서 모든 투입구를 폐쇄하고 그대신 옥외공간에 별도의 쓰레기 집적장을 마련하였다. 일본 요코하마의 대단위 주택단지인 선포트 빌리지의 경우 쓰레기 집적장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만나는 곳에 간이식 지붕을 가진 10평 정도의 공간을 할애하여 그곳에 종류별로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유럽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들도 옛날에 지어진 것 말고는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하는 예는 거의 없다. 여기서도 별도로 마련된 적재함에 쓰레기를 버리지만 유럽처럼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외의 단독주택지역에서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시민들이 각자 경계된 날에 직접 쓰레기공장에 가서 일정액의 처리비를 지불하고 버리게 되어 있다. 특별히 부피가 큰 쓰레기들, 즉 가구나 냉장고 또는 텔레비전 등을 버릴 때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물론 이와같은 방법은 미국처럼 모든 생활이 자동차위주로 되어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

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그 사회의 규범과 질서의식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들 선진국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이나 구조물의 설계에 상당히 신경을 쓸 뿐아니라 모든 것을 기계화시켜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쓰레기는 청결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쓰레기가 더럽고 보기 싫으며 귀찮은 존재가 아닌 당연히 우리손으로 버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인식을 뒷받침하듯이 밝은 색조에 산뜻한 모양을 갖춘 쓰레기통이라든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재활용 수집함, 예쁘게 만들어진 청소차량도 흥미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같은 쓰레기통이나 쓰레기차량은 보기 어렵다. 철저한 분리수거의 원칙은 쓰레기의 재활용과 환경오염방지도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되도록이면 비닐과 같은 비부패성 포장지나 봉지를 쓰지 않고 종이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하며 플라스틱 제품 등은 철저히 분리수거 된다. 그리고 헌책이나 신문지 등은 별도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며 잡지나 소설, 헌 옷가지들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둔다. 미국에서의 폴리마켓(flea market)이나 야드세일(yard sale), 유럽에서의 점블세일(jumble sale) 등도 따지고보면 근검과 절약이 생활화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폐품이나 쓰레기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다 많은 건전지나 수은전지 등 독성이 있는 쓰레기의 문제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별도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다 쓴 제품을 가지고 와야만 새것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모아진 폐품은 원생산자에게 돌려보내어 자체비용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 독극물의 처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폐품의 활용을 위한 보조금제도, 제품부과금제도, 예치금제도 등을 통하여 쓰레기의 재활용과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6. 결론 : 우리나라 아파트의 쓰레기처리 문제와 개선방안

금번 주공 주택연구소에서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약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주민의 92.5%가 원칙적으로 분리수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해오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몇가지 불편사항만 개선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은 앓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수거와 처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탄재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연탄난방 아파트의 건립은 중지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동주택에서의 연탄재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정용 쓰레기 중에서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55%에서 1990년 40%로 낮아졌고 2001년에 가서는 약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음식물 찌꺼기도 지난 86년 27.5%에서 2001년에는 약 18%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로 종이류와 플라스틱류는 86년에 각각 29.9%, 12.4%에서 35%, 15%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통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199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는 재생용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과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2항에서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연탄재와 비연탄재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계단실형, 복도형, 군집형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고, 각 유형에 따라 쓰레기 투입구의 형태도 서로 달라 확실적인 수거의 방법으로는 분리수거가 어려우며 더우기 쓰레기 집적공간의 구조적 특성상 일일이 인력에 의존하여 진개차에 상차하거나 일단 손수레로 운반한 후 상차하게 되어 있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비능률적인 수거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개차의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악취, 쓰레기의 유출 등 비위생적이고 환경오염의 요소가 잔존해 있고 압축,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반에 따르는 비경제적인 요인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당국에서는 분당 등 신도시에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쓰레기 투입구의 분리설치와 지하주차장에 기계식 집적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구를 설치하는 한 완벽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가지 회의적인 생각이 없지 않다. 우선 기계식 처리를 위한 제반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다음으로는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환기와 위생처리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파트지하의 대규모 지하주차장 설치문제는 다분히 교통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만을 고려한 해결책에 지나지 않으며, 현대 도시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상당수가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지금도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악취가 풍기고 어둡고 스산한 지하주차장에서의 주민의 안전과 환경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쓰레기 투척이 제대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것이며, 정해진 원칙을 위배했을 때에 따르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양식에 의존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무릇 인간은 편함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조치나 감시가 없는 제도의 시행은 쉽게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의 쓰레기 투입

구는 궁극적으로 전면 폐쇄되어야 하며, 아파트 단지내의 옥외공간에 공동집적소를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사전 요건으로는 첫째, 새로이 건설되는 대단위 주택단지나 신도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를 의무규정화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위치와 규모, 형태 등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소각장의 설치가 어려우므로 기초 자치단체마다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각장의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와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쓰레기의 95%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과 1.7%만이 소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올해로서 그 한계에 이르렀고 내년부터는 김포해안 매립지를 이용할 계획이며 김포의 경우 앞으로 3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운송거리의 증가, 환경오염과 경제성의 문제 등이 남아있는 한 매립에 의존한 처리는 앞으로 점차 축소, 지양되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쓰레기의 수거장비를 기계화, 규격화시켜 수거에 따르는 인력과 비용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비한 쓰레기통의 규격화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거차량도 대부분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압축형이나 폐쇄형 차량의 개발과 소형 수거차량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개발, 운영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선 중간단계의 쓰레기 중계처리장을 설치하여 일차적으로 압축처리한 후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번째로는 분리수거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 서울의 분리수거 시범지역 주민들이 갖는 불편중의 하나는 분리수거의 기준이나 원칙이 분명하지 않아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거용기도 일정치 않거나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또는 사회단체별로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준을 확실히 결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행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로는 수거빈도와 수거방법에 대한 원칙의 마련이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는 쓰레기의 수거빈도가 일정치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량배출자(1일 300kg이상)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주택보다 부담이 높다. 또한 헛가구나 냉장고 등의 대형 쓰레기가 아무때나 버려지고 이거나 보수공수로 인해 배출되는 다량의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빈도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주체와 계약, 일정한 수거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하며, 대형 폐기물 등은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수거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주기환경의 보전과 수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번째로는 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문제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약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연탄재와 비연탄재의

구분으로 재활용가능한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능한 것과 섞여서 버려지며, 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1979년 자원재생공사가 발족한 이후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농촌에서 폐기되는 비닐 등 폐합성수지의 수거와 처리만을 전담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번째로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의 이용을 줄이고 과대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소량화시키는 일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은 선진국의 거의 두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때문에 근본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수거와 처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전환도 필요하지만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제품부과금(product charge)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 제도의 시행으로 1975년에 쓰레기 배출량을 2~3% 줄였고, 폐지활용을 14만톤 증가시켰으나, 소매물가는 1% 정도만 증가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중의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의 고취이다. 아직도 일부 아파트 주민들간에는 쓰레기 투입구의 폐쇄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매일처럼 쓰레기를 손수 들고나와 공동집적장에 갖다 버리는 일이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이며, 쓰레기 수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쓰레기를 직접 버리며,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이를 구분해서 봉지에 담기도 귀찮다는 다분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연유하고 있다. 하기가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족이 새로운 도시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나만이 편하고 더러운 것을 직접 보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생활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주거생활이며 공동의 생활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 공동생활에서의 규범이나 규칙이 깨어진다면 우리사회는 그야말로 혼란과 무질서가 만연되는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폐쇄적인 아파트생활을 좀더 개방화시키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쓰레기 투입구의 폐쇄를 통하여 함께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웃간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규범과 습관이 제대로 정착되고 올바른 주거문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우선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와 가정에서의 산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계속적이고 광범위한 홍보활동의 적극적인 뒷받침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환경오염이나 공해, 쓰레기문제 등 전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될 때마다 일회적인 충격요법으로 마스크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겨온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여 이제 고정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정부당국과 행정부처도 현실적인 제약조건, 예산

과 인력, 장비 등을 탓한다거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사고에로의 전환을 통하여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모색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